

5-24-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시편 2:1-12

말씀제목: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서는 자신과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현 세상을 미리 보시고 다윗 왕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 버리자.’하는도다.”(시 2:1-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웃으실 것이며 진노 가운데 심히 불쾌하심 가운데 그의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시 2:6)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온 땅을 그의 기름부음 받은 아들에게 주시어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 같이 산산이 부수리라.”(시 2:7-9)

사도 요한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 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계 2:27;12:5; 19:15)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왕을 통하여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시 9:17;50:22)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음이라.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젓을 것임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사 34:1-5)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자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 오 하나님이며,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사 64:1-4)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디만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7-12)

아멘! 할렐루야!